

## 축사



**이영관**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이사장

###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6년 학회 출범 당시,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소재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세기라는 뜻깊은 시간 동안 우리 학회는 그 중심에서 학문과 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으며, 고분자 학회의 발자취가 곧 대한민국 과학과 산업발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기간 산업현장에서 고분자 소재와 함께하며, 학회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진두지휘하며 제가 늘 확신해 온 것은 ‘소재가 곧 힘이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학회의 연구성과들이 산업현장에서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학회가 배출한 인재들이 산업계 곳곳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산학협력의 가치와 연구자 여러분의 열정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산업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분자 과학기술이 풀어야 할 과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재, 순환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동력 역시 고분자기술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회가 학문과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플랫폼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학회가 걸어온 50년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그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펼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고분자학회가 세계를 선도하는 학술 공동체로 도약하고 우리나라 고분자 과학 기술이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찬란한 100년을 위한 담대한 도전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영관**